

방글라데시에서의 열 여덟 번째 편지

김 이태, 조 진희 선교사

사랑하고 보고 싶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주안에서 평안을 빕니다.

한동안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는지 말씀 묵상보다 먼저 인터넷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상황이 여기 방글라데시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다른 나라보다 좀 늦게 시작 되었습니다.

2주전에 이탈리아에서 온 노동자들을 격리하는 과정에서 격리된 사람들을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 그냥 가두어 두기만 해서 몰래 빠져나간 사람이 많아지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가 워낙 많은 나라이고 의료시설이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보다도 오히려 현지인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와 관공서 사업장과 모스크는 4월9일까지 휴무를 하고, 며칠전부터는 특별한 사유 없이 외부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한국도 크게 이슈가 돼서 저희들이 밖에 나가면 ‘코로나 코로나’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피하고 다닙니다. 더 당황스러운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을 경찰들이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토끼뿔을 시키기도 합니다.



참으로 악하고 악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 것은 분명 마지막 때의 징조의 한 부분일 것인데 정말 마지막 때는 어떤 난리와 소문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과연 있을지....저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에 더 힘써 나가야 함을 깨달으며 이 때가 감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기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들의 생계도 문제이고 혹여 이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갈수 있는 병원도 없는 실정입니다.

마스크조차 쓰지 않는 사람도 많고, 대부분 쓰고 다니는 마스크 또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스크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도와야 할지....

어제는 어떤 가정에서 일력거(릭샤)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쌀을 나눠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나라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감동이 됐었는데 저녁까지 그 지역 가난한사람들이 몰려오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누는 것을 지혜롭게 해야 하는데 아직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희 센터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50가정정도만 도우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바몬빠라 청년사역

저희는 지난 2월에 비몬빠라라는 지역에서 청년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때만해도 코로나가 방글라데시에서는 크게 확산되지 않았던 때이고 시골이라 안전하게 집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바몬빠라는 저희가 2009년에 단기로 갔었던 지역이라 더 새롭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교회 주위에 있는 청년 약 100여명이 모였고 3박4일 동안 새벽말씀 묵상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낯은 교회에 잠자리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지만 누구하나 불평불만 없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앞에 회개가 터지고 성령체험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pecially 이번 캠프를 위해 식사준비를 돕는 성도들이 캠프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청년도 아니고 식사준비에 바빠서 예배에 참석을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식사를 미리 준비해두고 예배에 참석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혜가 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때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있듯이 늘 주가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3월과 4월에 예정된 청년캠프를 취소하였고, 잠시 청년 스텝들을 더 굳게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밖에 없음을 절실히 느끼며 이 땅을 위해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예배와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마음 깊이 동감하고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다시 마음을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면 반드시 우리를 고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강건하시길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의 간절한 기도



예배 후 셀 모임



청년 훈련 센터 건축중



청년들과 함께 상추 심기

함께 기도해주세요

1. 우한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기를 ...
(가난한 이 땅에 더 이상 어려움이 생기지 않기를)
2. 믿음으로 선교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3. 청년사역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멈추지 않기를...
4. 센터 주위의 빈민을 돕는 일에 재정과 지혜를 주시도록
(50가구에 한가정당 2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5. 청년 훈련센터에 필요한 비품이 마련되기를.
(4월에 완공 예정인 청년 훈련센터에 필요한 비품을 사랑의 손길로 채워주세요)
비품목록:에어컨3개,냉장고1,컴퓨터,프로젝트,캐비닛1,책상10,책꽂이,침대1
매트 15, 커튼12